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라 한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실적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 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
 - 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
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실제적으로 그
 체험지수가 높지 않아
 중국의 정치적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인 공산당의
 체제와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분석할 필요를
 찾지 못했음**

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 문제 제기: 한중관계 관련 데이터의 필요성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어 중국(대륙)은 경제적으로 기회의 지역이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지대나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되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중국은 역사·문화·사회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금지되었다가 개방된 신비한 지역이었음
 - 이에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업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의 포괄적이고 좋은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 과거의 상황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자본력·기술·산업경쟁력 우위라는 장점으로 중국 정부와 사람들로 부터 대우를 받아 왔음.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빠른 시간에 산업혁신을 이루어내며 국가인프라 건설과 동시에 인재를 포함한 소프트 파워·경제·군사력을 동시에 발전시켜 실제적으로 세계 G2의 위치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IMF경제위기와 기타 국내 상황으로 제대로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게 되었음. 혹은 관찰했다라도 그 변화가 너무 빨라 이것을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봄
 - 한국은 한미동맹의 구조에서 안보를 유지하며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은 지도 20여 년이 되는데,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 체험지수가 높지 않아 중국의 정치적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인 공산당의 체제와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분석할 필요를 찾지 못했음
 - 그리고 현재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거대해진 중국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게다가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¹⁾ 즉,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한국의 관계란 남북한 대치상황 속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대북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 국제관계에 반응하고 있는 형세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국가 건국 이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외부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존해 중국을 바라보았기에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을 키우지 못했고, 항상 외국의 자료와 일부 전문가의

경험에 의지하여 중국을 이해해 왔기에 판단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음. 즉, 초기 대만이나 미국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대국으로 중국을 연구하였는데, 중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드나들던 한중수교 이전의 홍콩 지역의 중국연구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연구이기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연구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 연구는 아직도 중국연구의 주류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연구라는 것도 미국 내 연구방향과 유사점을 유지하기에 학문적으로도 한국의 중국 정치연구는 중국 자체의 연구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음.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이 사회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국사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의 중국연구는 힘들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냉전적 사고의 연구나 서구나 일본의 연구에 기초하여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 중국의 정치적 이론이나 가치관은 한국학계나 중국 관련 연구부서에서 단지 ‘중국의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냉전적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국익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체의 핵심과 그 운영체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국은 대만, 홍콩과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덩샤오핑(鄧小平) 등 개혁파가 추진하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한 점이 있음. 즉, 우리는 대만이나 홍콩의 학자들과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에 성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경쟁력 증가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나 한국 제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축소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처우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즉, 현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도 중국에 있어 한국제품이나 자금의 효용가치가 낮아져서 나오는 현상이거나 혹은 이미 강성해진 중국이 한국을 중국식으로 길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도 함.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 있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기에 중국이 쉽게 한국과 북한을 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한중 지도자의 상호방문이나 최근에 진행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보면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역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한중관계가 과거 인적 친분에 과다히 의존하여 상호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거나 때로는 중국의 일방적 대화단절로 서로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임
- 또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틀로 중국과 협상하면서

**한중 지도자의
상호방문이나
최근에 진행된
한반도 내
사드(THAAD)배치
문제를 보면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역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중국 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전문가들의 경험과****연구업적 데이터를****종합적으로 관리할****필요가 있다는 것임.****정책결정에서****전문가들의 의견도****중요하지만 기존****데이터를 구축하여****중국 정치의 흐름과****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시스템 구축도****중요하다고 봄**

그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고 봄. 예를 들어, 회담에서 공산당 통치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양하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던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우리의 소기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회담에는 정부가 기존의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봄. 즉,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연구와 준비를 하듯이 중국과의 협상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시기임

- 한 예로, 중국과 협상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것이나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은 공산당의 정치이념에서 쉽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론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 한중관계의 효과적 데이터 관리란 수교 전 단계부터 한국 정부가 중국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교류 및 회의했던 내용과 경험 그리고 중국 공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노하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외교현안 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즉,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업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존 데이터를 구축하여 중국 정치의 흐름과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봄

○ 한국 정부, 학자, 경제, 언론·문화인, 일반인이 보는 중국²⁾

- 중국연구와 분석에는 언어능력과 기존 연구지식 및 중국 사회·문화에 이해가 종합되어야 함. 때문에 인문학적 중국연구가 언어와 문화에 기초하여 중국연구의 시작이라면, 정치학적 중국연구에서 공산당 체제와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자료수집과 그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임
- 중국연구학자들이 보는 중국에 대한 시각은 전 세계적 국제관계의 틀에서 한중관계를 보는 시각도 있고, 한중관계의 틀로 동북아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도 있고, 한미관계와 미국의 세계정치의 틀로 한중관계를 보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일부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 기초하여 한중관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남북한관계의 틀도 한중관계와 비교하며 보는 현상도 발생함
- 중국연구에서 자신의 연구와 경험에 근거한 접근법은 그들이 공부한 지역과 전공에 따라 자신이 접해보지 않은 지역의 내용을 흘시하거나 혹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으로만 중국과 중국의 현상을 분석하려 하기에

중국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중국인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사례는 한미나 한일 간의 대화 혹은 한·대만 간의 소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구는 해당 국가의 연구와 그 지역 사람과 소통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에서 중국을 관찰하는 방법은 기존 대만에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연구하던 ‘부정적인’ 시각으로의 연구와, 구미(歐美)의 ‘민주·자유·평등·인권’에 기반한 중국 정치의 비민주적(독재적) 체제를 ‘중국적 특색’²³⁾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적대국가로 분석하는 연구가 중심이었음. 이에 공산당 지도체제의 조직적인 통제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중국에 새로운 ‘민주화’의 변화가 올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고 봄. 즉,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중국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임.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아직까지 평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음. 부정적 시각의 중국연구는 중국 국가체제와 그 통치그룹인 공산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보이기에, 연구를 위해서는 잠시 그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봄
- 한국의 중국연구자 중에서 서구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중국을 분석하는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중국적 특색’이라는 중국 국가 정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중국적 특색’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적 특색이란 함의가 갖고 있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봄. 중국적 특색이란 사회주의 중국의 정체(政體)로 정치·행정·군사·문화·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자신만의 체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을 얘기하는 것임
- 한국의 학자 중에 대만에서 유학하며 중국(대륙)을 적대지역으로 보며 공부를 한 세대나,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공부한 유럽적 가치관으로 중국을 연구하던 세대,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적 가치관을 배우고 공부한 세대의 학자들에게는 구미(歐美)에서 공부한 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 즉, 이들은 중국의 변화를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중국의 현실과 가까이 하려는 성향도 있다는 것임.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는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매력 때문에 연구자들은 때로는 중국 정치의 실체를 혼동할 때도 있음
- 반면, 서구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중국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그들과 서구식 토론이나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중국연구자
중에서 서구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중국을 분석하는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중국적 특색’이라는
중국 국가 정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중국연구를 구미에서
한 경우나
중화권지역에서
한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나지만
현장경험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봄**

-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식 혹은 동양식 협상을 하려고 함. 즉, 중국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연구하는지 혹은 협력대상으로 연구하는지에 따라 그 분석내용이 다를 수 있고, 중국인들은 우리가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어도 우리를 동양적 사람으로 받아들이려 아전인수나 유아독존적 사고가 작용한다는 것임
- 동양식 접근이란 우리가 일반 사교자리에서 교제 할 때 그들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쌍방이 의도한 최종 협상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즉, 이러한 양자 간의 선입견과 주관은 서양식 협상에 익숙한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서로의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쌍방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관념으로 받아들이며 회담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결과도 발생하게 함. 즉,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관, 국가체제 및 대화방식을 포함한 교류방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한중 양국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더 자주 만나 형식과 본의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야 서로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⁴⁾
 - 중국연구를 구미에서 한 경우나 중화권지역에서 한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나지만 현장경험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중국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시각이 다른 지역인, 예를 들어 대만이나 홍콩 혹은 싱가포르지역의 중국연구도 서로 같은 연구대상을 연구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이유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해석하게 되는 부분도 있음. 즉, 다각적으로 중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연구하는 여러 나라의 기관들을 통해 중국연구 내용을 섭렵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예를 들어, 러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및 일본과 구미의 중국연구를 통해 중국을 보는 시각과 핵심 정책이나 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면 중국을 보는 여러 시각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정부나 관료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봄
 -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보고 접하는 방법은 이들이 중국 지도자급과의 교류를 위해 정치적 만남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중국 정치인들의 사고와 행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이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중국 정치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봄.⁵⁾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인들은 개별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국을 이해하고 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나지만, 정치인들은 중국 지도층과 교류하기 위해 인간적 접근방법을 많이 활용하며 교류에서 서로의 관계를 배려한 정치적 술어를 많이 사용함.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중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인이나 외교관 및 기업인 모두가 배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언론의 경우, 한국의 언론이 중국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는 한국 언론의 초점과 대상이 한국사회이고 그 참고하는 내용이 서방의 뉴스공급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한국사회에 중국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언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사회의 부패와 문제점을 지적하듯이 이를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반중국정서적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음
- 즉, 한국의 언론기능이 자유로운 반면에 중국은 언론이 정부에 통제를 받기에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보기에 한국의 언론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임.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언론은 모두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사람들에게 좋게 혹은 나쁘게 보도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중국 전문기자들의 경우, 중국을 알리거나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도 꾸준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보자는 시도의 기사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중국사회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사업이나 유학 등으로 중국 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업 및 현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정서적(情緒的)으로 중국을 인정하며 중국을 좋아하는 부류도 생기게 되었음. 이들이 이해하는 중국이란 생활을 통해 중국사회와 중국문화의 특징을 개인적 관심이나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해하는 것으로 개별적이고 다양한 이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이해가 중국의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봄
- 이러한 중국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사회에 대한 개별적 이해와 한국의 대중정책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국가는 한국과 국제환경을 두루 살펴봄여 종합적 국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임. 이들이 가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지능력에 따라 중국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들은 중국사회를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직접 체험하며 지내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로 이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중국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임
- 한국에는 중국어나 중국문화와 인연이 없고 한국의 전통적 한미동맹과

한국의 언론기능이 자유로운 반면에 중국은 언론이 정부에 통제를 받기에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보기에 한국의 언론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임.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언론은 모두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사람들에게 좋게 혹은 나쁘게 보도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은 민주나**인권 등의 문제에서****중국 정부를****인정하지 않으며,****특히 일당독재체제의****중국을 더욱 인정하지****않으려고 함.****이런 사람들의 경우****중국의 한국에 대한****경제제재에 극히 더****불편함과 불공정함을****표현함**

한국과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중국의 가치관이 세계 보편적 가치관과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나 그 사회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음. 즉, 중국과 접촉이 적은 사람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선입견은 좋지 않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이들은 민주나 인권 등의 문제에서 중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일당독재체제의 중국을 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이런 사람들의 경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극히 더 불편함과 불공정함을 표현함.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국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경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관에 평등과 민주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그 잣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대국(大國)이라는 이미지인데, 중국 정부가 최근 대외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대국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중국을 비난하기도 함
- 개인적으로 한국전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연합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사회에 이바지하게 된 우리의 현대사를 경험하거나 학습한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서방 민주국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주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게 되며 중국의 비민주적체제를 비난하게 됨. 즉, 이들은 중국의 ‘특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경험이나 인류보편의 가치에서 중국사회를 보려는 부류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인에 있어서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 중국과 인연을 맺고 중국인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정책보다 그들의 중국에 대해 개인적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갖고 있는 중국 관련 지식을 통해 중국과 세계 그리고 다시 한국을 보는 경우도 있음. 수교 후 계속하여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은 한중관계의 문제를 그들의 현실적 관계와 정서 및 개인적 전문성으로 보게 되는데, 중국사회의 특성상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판단이 한중관계의 기본 평가척도로 작용하게 되기도 함⁶⁾
-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 중국 전문가나 중국 관련 영역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중국인들과 접하면서 중국인들의 사고를 대변하는 듯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중국정치적인 체제와 중국문화적인

사회를 쉽게 혼동하며 중국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개인이 터득한 문화적 경험에 따라 중국적인 것을 미화하게 되는 경우도 생김. 혹은 이런 가치관이나 표현방식으로 중국과 소통하며 이것이 평상시 한중관계를 보는 기본 틀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음⁷⁾

○ 중국 정부와 사회 그리고 중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

-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중국 인민들의 국제적인 감각은 오히려 동양적이거나 혹은 사회주의적 조직사회에 기반을 둔 봉건시대 귀족이나 백성과 같은 면도 있음. 그리고 이들은 현실적인 사회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임. 이들의 기본적 특징은 좋은 선물을 주거나 체면을 유지시켜주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주면 쉽게 친구가 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실리(實利)와 체면(體面)을 동시에 존중하는 관습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한중관계에서도 양국의 관계는 호혜평등에 기초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중국은 강대국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표현이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임.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양국 정부나 양국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 틀은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임. 즉, 상호비방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획득하는 것은 양국의 장기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가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과 공무원과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임. 비록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만약 가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의견을 알기 위해서는 공산당 체제(體制)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개인적 의견보다는 당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 정부의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중국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중국지역은 아마 대만(혹은 홍콩의 일부세력)일 듯한데, 대만은 중국대륙과 대립하는 시각에서 한국과 단교 후 한국의 유용성을 보며 각 상황을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대만은 통일 문제에서나 중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서로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호 경쟁하며 상대방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면서 서로 협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한·대만 간의 협력은 중국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가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과 공무원과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임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에 그 선명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임. 한국의 중국연구에는 아직도 대만(구 중화민국)의 연구방법으로 중국을 보는 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중국연구에 대만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중국연구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들(대만 등 중국대륙 외부 중국인과 중국 특별행정구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과 중국대륙의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즐기는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임. 즉, 전체 중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에 대한 공통적 의견은 경제와 문화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생활을 즐기는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임. 반대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생활리듬이 빠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임. 그러나 중국의 인민들의 사고에는 중국 공산당이 오랜 기간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선전하여 왔고 과거 한국전쟁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정신을 강조해 왔기에 아직도 북한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임
- 중국의 공무원, 학자 및 상인 및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중국 인적 정서와 지역적 정서의 차이에 따라 표출되는데,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감정도 많이 작용함. 개인적으로 한국과 한국에 대한 감정이 없던 사람도 정부의 정책홍보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대하는 정책이나 행동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중국 인민들은 혐한(嫌韓)으로 그 애국민족의 정신을 불태우고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임.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은 중국민족이나 중국이라는 국가 앞에서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애국애족을 표현하는 모습은 중국 근현대 역사에서도 많이 나옴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 동아시아 국제정세
 -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軍事崛起)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로 나오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보면, 과거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겼던 ‘카쓰라 태프트 밀약(가쓰라 태프트 조약)’ 내용과 같이 지금에는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막아주며 러시아에도 견제가 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일 동맹 전략과 ‘중국 포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즉, 미국은 동북아와 서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벌어진 냉전적 대치와 사회주의 확장정책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는 전통적 냉전의식을 갖고 있고, 이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즉, 동북아에서 세력 경쟁이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결로 보이는데, 이를 한반도 주변 4강이라고 하며 남북한의 대치는 이들 경쟁의 중간에 위치한 형상임. 이러한 세력과 세력 간의 경쟁에 도전적 행위로 그 밸런스를 깨거나 자국의 입지를 상승시키려는 시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 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미일 동맹관계에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자, 이 동맹으로 이 지역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임. 동시에 동북아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지역이기에 미국의 군사산업의 상업적 목적도 존재하며, 미국은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인구밀도 및 인구분포도가 높은 동아시아의 시장가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을 섬기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가야 하는 상황임. 미국과 협력하다 급작스런 진주만 공격도 해 보았던 일본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보를 획득하려는 의도와 일본의 국력증강의 목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북핵 위협도 국내정치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즉,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익확보와 북핵 문제와 동북아 대립구도를 국내정치에 적절히 활용하며 집권당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탈되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오거나 혹은 협력적인 관계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전략도 이와 유사한 것임.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인의 정서가 일본에 비해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북핵 위협도
국내정치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아시아에서****중국과 러시아****그리고 북한은****미국의 국가이익에****저해될 수 있는****대상으로 규정되어****이에 대비한****대외정책이 실행되고****있다고 할 수 있음****시진핑 정부가****‘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해****‘강군몽(強軍夢)’을****준비하는 것을 보면****군사력증대는****국가영향력을****확대하기 위한****전제조건이 된다는****의미에서****서태평양에서 미중 간****혹은 강대국 간에****분쟁의 소지는 상존**

중국인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나 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 영토를 놓고 실제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북한은 수령계 제3세대 지도자 김정은이 통치력을 강화시키며 대외 문제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즉,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획득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최종 협상의 고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북미협상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언급한 적은 없음

○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도전

- 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夠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으로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중국의 전략과 본격적으로 대치하기 시작했으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강한 대치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득을 취하며 국력신장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음. 이것이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임
- 과거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익(核心利益)이 걸려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오다가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음. 즉,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저해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비한 대외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이들에 의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더더욱 그러함
-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해 ‘강군몽(強軍夢)’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군사력증대는 국가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혹은 강대국 간에 분쟁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보임.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보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미중회담이나 그 협의조건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맞추어주며 내부적으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한반도해역에서도 해당 국가 및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형태인데, 중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과 공군력 및 미사일부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서태평양지대에서 적어도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중국의 소리를 내며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군사전략과 외교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설정한 대결구도는 미중관계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중국의 증장기 목표는 대만을 통일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양에서 중국의 확장정책은 동남아와 인도양, 남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중국 과거의 영향력 회복이라 주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나타남.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과거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한국전쟁 참전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 기초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는 군사, 정치, 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지만, 그 핵심은 중국 주권의 회복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인들의 민심을 응집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함. 중국은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통일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평가되기도 함.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은 전통적 안보개념 외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전부터 주장되던 중화민족의 꿈을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추진하는 현실적 시대에 들어섬
 - 현재 중국은 강대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대국 외교와 주변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병용하며,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현재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 몸을 낮추고 있는 전략으로 보임
 - 이미 중국이 회복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통일을 목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대대만 전략은 모두 중화영토의 확장과 그 영향력 확보에 기초한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를 기초로 한 중국의 전통적 천하통일론과 같은 중화사상이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중국은 때론 이 중화사상에 기초한 외교를 주변국 외교에도 사용하고 있음. 사실 ‘일대일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전략에도 이런 잠재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중국은 자국의 경제·외교·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중국과 세계가 연결되는 산업 및 금융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

**중국은
강대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대국 외교와
주변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병용하며,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현재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다른 측면에서**중국의****한반도 문제에서****사드배치 문제는****중국 국내정치적인****요인 외에****전통적 안보개념****그리고 미국과****대치하는 상황에서****동북아에서 중국의****영향력을 확대해야****한다는 전략적 목적이****같이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꾸준한 전략적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 동북아 국제관계는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체제의 대립과 북핵 문제와 양안(兩岸) 문제라는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도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임.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전략은 모호하게 중국의 국가이익에 근거한 실제적 국가안전과 중국영향력 확보를 위한 완충지대 혹은 교두보 확대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실제로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의 주변안정이라는 문제와 자국의 안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부 문제를 외부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 민심수습과 단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음. 즉, 올해 공산당 19차 전당대회를 향한 강한 지도력 구성을 위해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요인 외에 전통적 안보개념 그리고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적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미국세력과의 경쟁은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은 기초에서 중국이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즉, 실제적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 국내의 정치와 외교적인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주위의 다른 막료의 조언으로도 그 문제를 철회하기는 힘들다고 함. 즉, 지도자가 이에 대한 사고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임
 - 혹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로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제재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또다시 한중관계에서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경도가 될 때까지 그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동안 공산당이 한국전쟁과 중국의 입지에 대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선전한 내용에 명예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중관계 문제는 중국의 국내정치를 관망하며 이 문제의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것임. 즉, 중국 국내정치 환경이 대외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통해 보면 중국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 개선의 조짐도

알 수도 있다는 것임. 즉, 중국 지도부의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및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한중관계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임.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의 판단과 시진핑 주석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봄

- 최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11월 미중회담을 준비하면서 미중회담의 의제에 중국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이 많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판단됨

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

○ 전통적 한중관계

-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매년 중국대륙에 통일왕조가 형성되거나 왕조의 쇠퇴로 혼란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에서 ‘대립’이나 ‘협조’라는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왔음.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중 간의 마찰은 과거 역사에서 겪은 내용의 재연으로 보이나, 이것이 현실적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음. 과거가 한국과 중국의 일방적 관계라면 현재는 국제관계의 현상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다자관계에서의 일방에 대한 제재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중관계도 쌍방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임
- 한반도의 삼국시대에서 신라의 통일과 고려, 조선왕조로 이어지는 동안 한반도는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세력에서 문화적 선진민족이라는 중원에서 출발한 한족(漢族)의 왕조와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경제·문화 교류를 하였다면, 동북의 이민족세력이나 그 왕조와는 완강하게 대립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한국은 중화세계에 패자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협력과 갈등도 상존했음을 알 수 있음. 즉, 한중관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과거 한중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잘 파악할 필요도 있음

○ 1910~1945년의 한중관계

-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중국대륙의 상하이(上海)와 옌안(延安), 동북지역과 연해주지역은 나라 잃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의 장이 되었음. 당시 한국인들은 중국의 여러 세력과 협력하며 조국의 독립을

최근 들어

중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11월 미중회담을 준비하면서 미중회담의 의제에 중국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이 많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판단됨

**현재 한중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서로 협력의 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반일정서는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획득하려 타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외부의 적과 대립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우리의 동맹국가가 중국의 잠재적 경쟁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미관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봄. 특히,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과 미중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봄

- 한국인이 아시아대륙에서 행한 독립운동은 국민당 정부와 협력한 독립운동도 있고 공산주의자와 같이한 독립운동도 있으며, 동북지역에서 중국 동북항일조직과 같이한 독립운동 그리고 러시아지역에서 진행한 독립운동 등도 있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모든 정파와 지역을 통틀어 전 중국인과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1949년 분열되기 이전까지 독립을 염원하던 한국인과 독립 후의 한국인은 모두 중국 정부들과 협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할 수 있는 근대사의 중요한 협력근거가 될 수도 있음
- 중국과 대만이 분열되고, 우리가 대만과 오랜 기간 수교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년 중국과 정식 수교한 관계를 보면 한국은 꾸준히 중국과 교류를 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한국은 대륙과 붙어 있는 반도국가 이기에 지정학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과 대륙 국가와의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한중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서로 협력의 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반일정서는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라는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미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임.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의아해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임
- 중국에서 한국전쟁 관련 영화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때로는 방영되기 어려우나, 항일전쟁 영화는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북아국가의 역사의 굴절을 의미하는 것임. 즉, 중국은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는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전쟁과 한중관계

- 한국전쟁은 북한의 도발로 한국전쟁의 결과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냉전시대를 맞이했는데, 냉전체제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도했고 이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이 되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중국은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에 일부 한반도 분쟁상황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기도 함
-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명분으로 인민지원군을 참전시켜 북한에는 혈맹으로 우리에게는 역사적 전쟁의 적으로 기억되고 있고, 한국전쟁에서의 한중의 적대관계는 한중수교를 맺는 1992년까지 이어지다 수교에 이르지만 아직도 한중관계에는 많은 역사적 그리고 현실 체제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 사실, 한국과 중국의 냉전 시기 대립의 상처가 형식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그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속에서 천천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관계에서 서로의 양극과 역사적 기억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1992년 수교 후 한중관계

- 한중수교의 국제적 배경은 미소가 1989년 12월 몰타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1990년 9월 한소수교가 수립된 것 등이 한중수교의 디딤돌이 되어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하게 됨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수교로 양국의 교류를 새롭게 개시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한중관계는 수교 후 꾸준히 양국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기초로 정부의 주도 아래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어 한중관계도 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최근 박근혜와 시진핑 정부 시기인 2015년에 한중관계는 한국의 AIB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한중 FTA 비준 등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한 한 해였으나, 2016년부터 북한의 핵도발이 더 빈번해지고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가 나오며 한중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음
- 한중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든 이유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사실, 한국과 중국의 냉전 시기 대립의 상처가 형식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그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속에서 천천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임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 때****중국이 보인****태도를 보면****중국은****‘2개의 한국 정책’을****실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북중관계는****탈북자 문제 등에서도****항상 한중관계에****영향을 미친다고****할 수 있음**

안보의식 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적극 개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미중 간의 대립과 남북한의 대치가 한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 볼 수 있음

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 현재 한국과 중국은 수교된 지 25년에 서로 경제·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 및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의 축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됨. 즉, 동맹이라는 구조에서의 안보 요인이 결국 국가 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임
- 특히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한 대치 문제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한미동맹은 전체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교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때 중국은 이러한 대립의 완충요소로 북한을 어느 정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음. 한미관계는 현재 한중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고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의 모순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임
-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과도 수교되어 있는 상태이기때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중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 중국은 ‘2개의 한국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중관계는 탈북자 문제 등에서도 항상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한·대만관계도 양안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안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외에 한국과 중국의 역사 및 영토 분쟁, 해양영토와 어업권 분쟁 그리고 무역과 금융 등의 분쟁도 한미동맹과 한국과 중국의 다른 안보대립이라는 분쟁 이상으로 항상 잠재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 최근 중국 국내 상황과 대외정책

- 현재, 중국 공산당의 중국 통치와 국제관계에서 정책의 많은 부분은 공산당의 건국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97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결과와 현재 새로운 중국의 건설이라는

‘중국의 꿈’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연속과 지속성이라 할 수 있음

- 얼마 전 중국의 학교와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정부 관리와 인터넷 검열이 최근 더 엄격해진 이유는 11월 공산당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 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즉,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로 접어 든다고 할 수 있음
- 때로는 홍콩에서의 반중시위를 보면 중국의 정책이 홍콩에는 그리 통하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즉 중국의 행정제재나 홍보 정책이 중국 역내에서 직접적 통치를 받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거나 반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진 것을 보면 앞으로 홍콩이나 마카오도 더욱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대만 민진당은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이견이 꾸준히 많고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중국과 대만은 결국 통일이나 독립이나 혹은 공산당이나 대만의 민진당 세력(혹은 국민당 세력)이나를 두고 꾸준히 쟁론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언젠가 이 부분도 국제정치의 큰 분쟁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중국과 우리 상황에 대한 재인식

-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리고 공산당의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중국은 국가이익을 인민의 이익으로 동일시하며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치목표라고 주장하기에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정부기관인 학교와 연구소 및 언론기관은 모두 같이 대내외적 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중국 외부로 반영되고 외부의 현상은 국내정치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즉,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 의견이 쉽게 통합되고 이것이 국내의 정치와 공산당 통치로 융합된다는 것임
- 중국사회의 통치방식은 공산당의 조직이 정부행정 부서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조직이나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공산당이 항일전쟁과 국민당과 내전을 할 때도 사용하였던 ‘선전전술’로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의 전달과 이에 대한 지지’는 중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에 관한 내용의 진전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됨

**공산당의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중국은 국가이익을
인민의 이익으로
동일시하며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치목표라고
주장하기에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정부기관인
학교와 연구소 및
언론기관은 모두 같이
대내외적 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중국 외부로
반영되고 외부의
현상은 국내정치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한국에 대한**반한감정이나 제재는****바로 공산당의****한국 정부에 대한****정책을 반영하는****것으로 볼 수 있음.****혹 중국의 지도자나****지도부와의 인연으로****한중관계를 개선할 수****있는지에 대한****의문도 들 수 있지만,****중국의 지도자가****중국 공산당을****대표하며 인민을 위한****정치를 한다는****측면에서 이것이****당과 국가의 이익에****부합하지 않으면****한국 정부의 의도가****실현되기 힘들다고****보는 것이 맞음**

- 중국사회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이 정부와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며, 심지어 공산당 조직원도 이 조직을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의 군사와 행정 및 사회 모든 분야는 공산당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음. 중국 정부의 정책은 지도자의 연설이나 좌담 혹은 정책발표 등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정책방향으로 연결됨
-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이나 제재는 바로 공산당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혹 중국의 지도자나 지도부와의 인연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지만,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음
- 중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중국의 언론매체를 오랜 시간 보다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평화를 강조하며 협력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정책이론이나 언론홍보가 이미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제는 외국으로까지 이를 송출하며 국가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공산당은 중국 정치에서 군사와 정치·행정체제는 어느 정도 장악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가시적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중국어에 능숙하고 중국사회에 융화되어가는 사람들은 즉, 한국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 외국인들도 중국 공산당의 정치나 대외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한마디로 동북아 국제정세에는 세력경쟁 외에도 체제나 가치관의 대립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임
- 한국에서 한국의 학자들과 구미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임. 비록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류도 있지만 미국과의 교류와 협력 및 협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낸 한국과 한국인에게 있어 중국의 중국인들과의 협상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에는 아직 많은 거부감이 있어 보임. 즉, 한국은 당분간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됨
- 중국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 건설과정과 건국이념 그리고 통치에서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공산당이 얼마나 받아들이며 통치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국내정치 외에 대외정책도 이해할 수 있기에 중국연구에서는 공산당 통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작년 중국이

한국에 어떠한 제재를 할지에 대해서도 중국 시민 사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우리의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판단에 의해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한국제품이나 한국에 대한 제재적 반응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공산당과 인민과의 관계를 간과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봄. 혹은, 이에 대한 판단을 중국 내 정부정책이나 그 시행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공산당 정책을 우리에게 편리하게 판단한 데도 문제가 있음

-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이 한중관계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음
- 즉, 한국은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기본 전제에서 한미관계를 존중하는 틀에서 한중·한러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임. 또한, 한중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독립변수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중미 간 마찰 부분의 내용은 가능한 한 간접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함
- 한중관계는 경제·무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중관계의 경제적 효율도 미국의 국내의 경제정책과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이란 양국의 내수시장을 제외한 제3국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미국과 제3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한중관계에서 쌍방의 경제적 영향이란, 양국의 기본적 내수에 기반한 수출입구조와 관광산업분야에서 양국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소비정서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한중관계의 변화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들의 한국 내 소비가 줄어들고 또한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 정부정책에 따른 언론 홍보영향으로 반한감정이 증대하여 소비심리와 정부정책이 동시에 한국과 한국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 즉, 양국의 모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영향이란 강대국 세력경쟁과 지역안보 구도에서의 동맹국이나 협력국가들과의 공조 및 이에 기반한 국내의 국가정책이 양 국가의 교류나 그 국가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임
-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한미관계나 남북한관계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보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한중관계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한중관계의 경제적 상호배려라는 우호적 정책이 국가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한중관계는
경제·무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중관계의
경제적 효율도
미국의 국내의
경제정책과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이란
양국의 내수시장을
제외한 제3국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미국과 제3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한중관계에서**중국 내 한국기업이****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는 것은****한중관계의****경제적 상호배려라는****우호적 정책이****국가안보 정책에서****나타난 불만으로 그****배려가 줄어들었거나****혹은 상반된 정책이****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할 수 있음**

불만으로 그 배려가 줄어들었거나 혹은 상반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각 국가의 안보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상호 경제적 호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됨

- 한중관계 모순과 마찰에 대한 해결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양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봄
 - 한국이 중국과 교섭하며 사드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중국 자체의 변화를 기다리며 현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현명한 전략일 것임. 즉, 중국 지도자의 사고가 바뀌기 전에 한국인이 대국인 중국에 어떠한 요구를 해도 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중국에 있어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없고, 지도자의 말이 거의 법과 같은 현 상황에서 누구도 지도자의 사고를 바꾸게 하는 모험을 하여 자신에게 화를 자초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됨
- 한국의 선택 가능한 대중국 외교와 교류방법
-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 있어 축은 한국이 주체가 되어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력외교가 추진되어야 함
 - 한국 정부에서 중국을 보는 입장은 수교 후 여러 차례의 모순과 마찰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상방법을 익혀나가고 있으나, 중국과의 교섭에서 중국이 일률적으로 대화 창구를 통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나쁠 경우 소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이러한 소통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고위층의 인적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간접적으로 중국의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제3국의 채널을 형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해 보임.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및 군부 및 공안 인사들과의 정부 차원 교류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인적교류에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데이터 정리도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한국이 대중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제3국이 보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의 평형을 찾아야 한다고 봄. 당시 적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이 보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한중관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발생한 한중마찰도 이를 고려하며 한국의 대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중국의 제재도 미연에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한미관계라는 전통적 틀과 한중관계라는 새로운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경제적 측면이라면 냉전의식이 존재하거나 북핵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프레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에 이에 대한 신중한 외교적 선택이 있었어야 한다고 봄

- 우리가 강조하는 중국인의 ‘관시(關係)’에 기초하여 중국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사회문화의 중요한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이라는 통치구조에서 당의 ‘정치이론’에서 강조하는 인민을 위해 일하는 공산당이 국가의 중심이라는 전제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너무 간과한 부분도 공산당의 정책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보임
- 즉, ‘관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공산당 지도체제의 ‘관시’를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공산당 지도체제는 ‘출생배경·당성(黨性)·추천인·개인능력 그리고 인적관계’라는 것을 보면 중국사회의 일반적 ‘관시’와 중국 공산당의 인적 네트워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일반 중국사회 이해를 통한 중국 공산당의 이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관시”의 형성이란 중국사회와 정치체제를 잘 이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가능한 것임
- 한국 정부는 현재 국제질서의 구조를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도전이라는 패권경쟁의 구도로 인식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맞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임. 또한,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보하고 나가야 동북아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발생한 문제를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중국과의 접촉방식으로 해결하려다 정확한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단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임기응변적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한중관계의 여러 문제와 사건은 사안별 자료가 정리되어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한중관계 문제 해결 데이터로 정리되어 활용되었다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한중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다시, 이러한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호전되고 건설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나 지도부의 노력 외에 양국 언론의 작용이 중요할 것이나 과거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나 중일관계를 보면 양국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 중국에는 반일감정 이상으로 반한감정이 높아진 상태이기에 중국인들이 정서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민심으로 반영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
-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더 많은 항공모함을 유지하며 해양에 진출하여

**우리가 강조하는
중국인의
‘관시(關係)’에
기초하여
중국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사회문화의
중요한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이라는
통치구조에서
당의 ‘정치이론’에서
강조하는
인민을 위해 일하는
공산당이
국가 중심이라는
전제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너무 간과한
부분도 공산당의
정책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원인**

**항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언젠가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양국 정부 관계가
원만 할 때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강대국이 되려 하는데,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언젠가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양국 정부 관계가 원만 할 때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의제와 지역에 대한 국제법과 국가 외교력에 근거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중국과 협상을 통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주석

* 본 내용은 저자가 중국과 홍콩, 대만 및 세계 화교권 지역을 오랜 기간 답사하며 채득한 중국을 이해하는 틀과 방법 그 내용을 인문학연구와 국제정치연구라는 경험에 의거해 서술한 내용으로 그 자체가 진위를 증명하는 논증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분석이기에 독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참조내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앞으로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고 정부는 어떻게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니 이 또한 참고사항으로 여기면 좋겠다. 또한, 혹시 중국인들이 이 문장을 읽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중국과 한중관계의 분석은 개인적 분석에 의존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이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글이 작성된 시기는 2017년 10월초이기에 시점적 문제는 일부 보안하였다.

- 1) 1983년 대만을 시작으로, 1985년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1989년부터 중국을 돌아보면서 본 당시의 중국 내부와 중국과 인접된 지역을 보면, 중국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과 인접지역의 관계에서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은 중국이 모두 우세한 상황이다.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기까지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일부 동남아 국가들까지 경제상황이 중국 보다는 앞서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중국과 인접한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과 가까이 있는 국가나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중국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면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외에도 중국적인 그 어떤 힘이 다시 중국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 2) 한국이라는 민주사회에는 여러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중국에 대한 의견도 서로 차이가 나며, 특히 같이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실제적인 사회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통계로 작성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인적 의견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부분에도 양해를 구한다.
- 3) 중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국가상황이 서로 다르다(國情不同)’는 중국의 국가체제와 정치 및 통치체제가 다른 나라와 달라 그에 의해 형성된 사회제도나 현상

이 특이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사회를 특징짓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즉,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외국과 다르게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4) 오랜 기간 중국인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한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쌍방이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상대방 문화와 언어습관 그리고 그 체제 내에서의 표현 및 전달방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고위직 요원으로 공산당에 의해 배양된 인재들이다. 이들은 공산당의 기본적인 조직 관리와 생활과 언어표현에서 긴밀성, 은밀성, 절제와 보안에 신경을 쓰기에 이들의 언어표현과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교육과 그들의 행위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 6) 이는 중국사회가 공산당의 통치에 따라 모든 행정과 사회, 문화가 국수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수주의와 중화주의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상 차이일 수 있으나, 중국(문화)에 대한 과다한 집착이나 사랑이 국수주의로 변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중화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이지만 서구에 비해 정치를 제외하고는 문화·사회적으로 편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비교정치학적 이해보다는 한 지역연구에 몰입하거나 그 지역 생활에 적응되어 한 지역에 대한 인지능력이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현상으로 생성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러한 사람들이 대만이나 기타 지역의 중국인(세계 화교)들과 소통할 때도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에서 중화사상적 사고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좀 더 넓은 시야로 미국, 일본 및 다른 나라와 체제와 중국을 비교할 수 있다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일반적으로 한 지역 언어와 지역연구에 몰입하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가하여 다른 지역을 배타적으로 보는 사고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반중 정서도 증가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안보연구소, 2017.

Ikenberry, G. John, and Michael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Shambaugh, David. *China goes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_____. *Power Shi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Shambaugh, David,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8.

- 霍学伟. 『中国人的关系原理—时空秩序、生活欲念及其流变』. 北京大学出版社, 2011.
- _____. 『人情、面子与权力的再生产』. 北京大学出版社, 2013.
- _____. 『中国人脸面管—形式主义的心理动因与社会表征』. 北京大学出版社, 2014.
- 喬鍵、潘乃毅. 『中國人的觀念與行爲』. 麗文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8.
- 吕超. 『中国周边外交与东北亚去区域合作』. 万卷出版公司, 2011.
- 蕭新煌、文崇一. 『中國人—觀念和行爲』. 巨流圖書公司, 2010.
- 楊國樞. 『中國人的價值觀—社會科學觀點』. 桂冠圖書公司, 1993.
- 于建嶸等人. 『中國大呼吸—十大學者論國家戰略與民族使命』. 晨鍾書局, 2009.
- 朱建军. 『中国的人心与文化』. 山西人民出版社, 2008.
- 朱锋. 『国际关系理论与东亚安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第一卷、第二卷』. 中国党史出版社, 2011.
- 彭邁克. 『難以捉摸的中國人』. 牛津大學出版社, 1993.
- 洪向华. 『复兴之路—中国崛起的30个历史关键』. 青島出版社, 2007.
- 黄大慧. 『构建和谐东亚—中日韩关系与东亚未来』. 社会科学文学出版社, 2009.

❖ 저자 약력

■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홍콩 亞洲週刊 특약기자, 한국 亞洲經濟 중국전문대 기자 겸 아세아중국연구소 소장.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콩 중문대학과 마카오 동아대학(MMS)을 거쳐 홍콩 주해대학(珠海大學) 중국문사연구소에서 王爾敏 교수의 지도 아래 “과도기 홍콩의 변화(1940~1989년)”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趙寶煦 교수의 지도로 “냉전 후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환경을 향한 한국의교”로 199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중심의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LG건설 대만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만(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2003년 단국대학교로 부임하였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